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도내 134곳 참여

전북교육청, 공립유치원서 임시 돌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키로

18일로 예고된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도내에서는 130여 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16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이날 집단 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134곳(79.3%)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집단휴업이 예고된 이후 도내 유치원들을 상대로 휴업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임원 및 원장 면담 등을 통해 휴업에 참여하지 말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휴업을 할 경우에도 돌봄 운영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일부 유치원에서 돌봄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공립유치원에서 임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도교육청에서 1일 보험도 가입해 주기로 했다.

돌봄 신청이 필요한 학부모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돌봄이 가능한 유치원을 배정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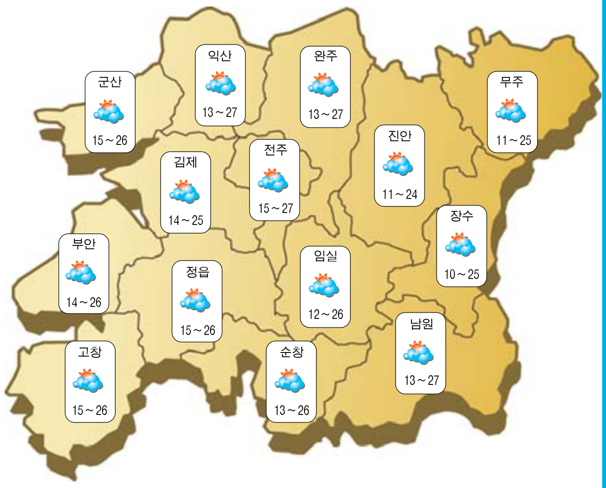
한편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8일 집단 휴업에 이어 25~29일 집단 휴업도 예고한 상태다.

/정해은기자

환경디자인개선사업으로 재탄생된 영등동 지하보도 익산시는 영등동 지하보도에 대한 환경디자인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개선사업을 마무리한 후 어린이들의 그림이 전시된 영등지하보도에서 시민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이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9월 18일 월요일 해뜸 06:13 | 해짐 18:45 달뜸 22:47 | 달짐 10:39

날씨 최저기온 10~16도 최고기온 22~27도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내일 개최

크고 작은 100여개 전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전시 · 판매 · 홍보행사 진행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미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지역 내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 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17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사회적경제한마당에 이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기획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온두레 공동체 등 전주시 100여 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가해 생산품을 전시·판매·홍보하는 '모두의 소셜마켓'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상담회와 사회적경제 일자리 훈련 참여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사회적경제를 설명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의 운영원리와 사례를 소개하는 '청소년 사회적경제를 만나다'와 '공유경제 체험관', 행사기간 동안 박람회장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엿보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희로애락을 들어볼 수 있는 '사회적경제 라디오 온에어' 등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중 사회적경제 토크 콘서트는 문화예술분야 등 (예비)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박람회 축하공연과 시민들에게 생소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진다.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를 만나다'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이념, 가치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공동체와 도시재생 분야의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호혜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정보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서로 나누는 사회적경제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북 사회적경제 활동가 교류회'도 열린다.

이밖에, 행사장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노송FM'과의 협력을 통해 라디오 매체의 친밀함을 섞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는 라디오 방송 부스도 마련된다.

/김민근기자

전북대 오종현 교수 지역사업 옴부즈만 선임

1년 동안 지역사업 운영 전반 상시 모니터링 담당

전북대학교 오종현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가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제4기 전북지역사업 옴부즈만에 선임됐다.

지역사업 옴부즈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다양한 지역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산과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총 6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선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앞으로 1년 동안 지역사업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지역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도·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역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정해은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시 청소년 · 청년 미래를 말하다!

희망플랜 지역사회 릴레이 포럼 열려

전주시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민거리와 각종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보도자료 서체는 조선후기 전주의 목판 인쇄본인 완판본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고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 희망플랜전주평화센터가 주관하는 '희망플랜 지역사회 포럼'이 지난 15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희망플랜 지역사회 포럼'은 그간 지역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돼왔던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14일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11개 희망플랜 지역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청년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전주지역 포럼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난이 전주시의원과 김광혁 전주대 교수, 김흥주 원광대 교수, 전주시 청년대표인 김은총 씨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젊은 층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특강을 통해 전주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희망플랜 사업은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발굴·조직하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진로와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립향상프로젝트로, 전주시 주관기관인 평화사회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평화동과 서학동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도교육청, 15개 초중고교 체육관 신축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252억원을 지원해 도내 15개 초중고교에 체육관을 신축한다.

15일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우천 등 기상여건에 제약받지 않는 사계절 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52억원을 지원, 도내 15개 초중고에 다목적 체육관 등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는 학교는 전주동초 전주팔복초, 군산 금광초 군산남초 산북중 군산서흥중, 익산 오산남초 삼성초다.

또 완주 삼우초 봉성초 소양중과 임실치즈과학고, 순창중, 부안제일고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전북체육중고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을 신축한다.

/정해은기자